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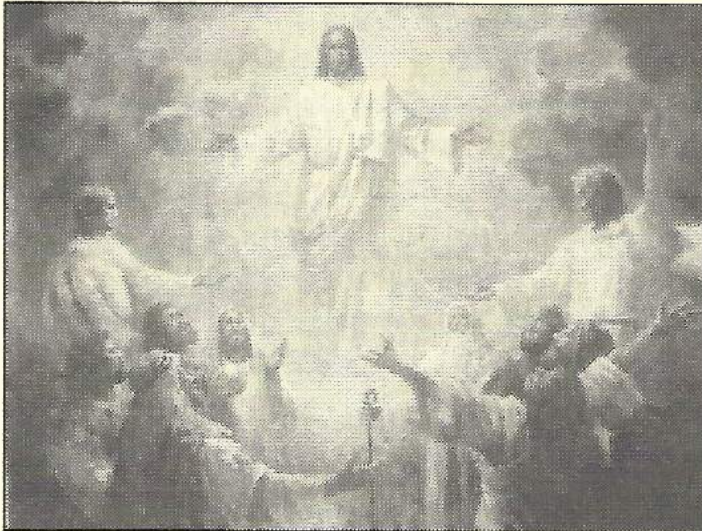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7주일, 주님 승천 대 축일

제36권 24호(다해) 2016년 5월 8일

[묵사]



< 주님 승천 대 축일 >

예수님의 떠나심은 곧 세상의 종말이 아니다.
단지 첫 번째 일의 마무리이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신 것뿐이다.

동시에 이것은 두 번째 일의 시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몸을 입으시는 것이다.
이제 세상을 넘어 하느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이다.
하느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 사업을 위하여 성령을 파견하시는 시간이다.

오늘은 2천년 전 승천하신 사실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 곳곳에 알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을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1.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선교 정책 (1882~1911년)

1-2. 개항기 선교와 정교 분리 정책

일제 침략이 강행되던 단계에서 선교사들은 개항기 이래 강조되어 오던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조선에서 일본 식민 통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함은 물론, 독립운동을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신자들의 독립운동도 '정치 활동'으로 확대 해석하였으며, 신자들의 이러한 '정치 활동'이 선교의 자유를 저지하거나 교회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들은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의 합방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무마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또 다른 '정치적 행동'을 감행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

2. 문호 개방기의 교회(1882~1911년)

2-1. 교회의 성장

조선 사회는 문호 개방 이후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상의 여파는 천주교회에도 미치고 있었다. 곧 개항 이후 조선 천주교회는 1866년의 박해에 따른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다시 입국해서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을 모았고, 신앙의 자유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곧, 1876년에는 블랑(Blanc, 白圭三, 1844~1890년) 신부 등이 입국하였다. 그리고 1866년에 순교한 베르뇌(Berneux, 張敬一, 1814~1866년) 주교의 뒤를 이어 제6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리델(Ridel, 李福明, 1830~1884년) 주교는 1877년 조선에 다시 입국하여 비밀리에 선교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는 입국한 지 4개월 만에 체포되어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조선 정부가 체포한 선교사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대신 추방을 결정한 것은 정책상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물론 리델 주교와 함께 체포된 최지혁(崔智赫)과 같은 신자는 옥사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교사 추방은 선교 자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주목할 만한 변화로, 1880년에는 공주에서 체포된 신자가 배교를 강요당하지 않고 석방되기도 하였다.

오늘의 성가

<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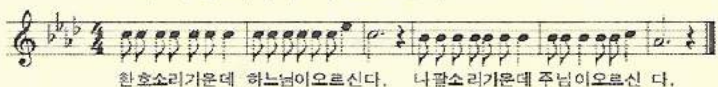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04	104	172
봉헌	269	269	259
성체	308	308	295
파견	165	어머니은혜	165

토요 저녁 미사	(연) 유금중 프란치스코
	(생) 배론청년회원들, 홍사동 베네딕도 & 이피아 아네스, 오창근 베드로 사제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용식 베드로 & 김준경 요한, 현시영 요셉, 고준희 제임스, 이강영 바오로, 민기남 모니카, 이용환 & 홍숙녀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 이인환 & 이두제 마리아, 정인식 베드로 & 장현숙 발바라, 김종환 야고보, 연옥영혼, 오종순, 이병완 마리아, 박희성 데레사 & 김계성 아가다, 이정희, 이필연 마르첼로 & 임규예분다 & 정을진, 이영자 올리아,
	(생) 박정미 클라라, 황윤재 베드로가정, 전병창 프란치스코 가정, 전태준, 전태경, 전계옥 보나벤투라가정, 전재용 안토니오가정, 김중우 안드레아 가정, 임명희 겐마, 이영옥 헬레나, 이민욱 레지나, 이용훈 안드레아, 정승원 켈리 & 트레이시 히구쎈, 유은상 안젤로, 정승민 그레이스 & 김서량 토마스, 송명숙 & 정현준, 이기영 안나 & 장미경 그라시아 & 고진희 리디아, 이현홍 루도비코, Korean American 가톨릭 50주년,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1-11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하느님이 온 우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1,17-23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루카(Luke) 24,46-53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기뻐하는 주님의 증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일곱 살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잘 모르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할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할머니는 저 먼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신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 뵈었고 말씀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할아버지의 말씀들과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가끔씩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 축일’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을 떠나신 분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설명하듯이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설명합니다. 주님 승천은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가셔서 이제 더 이상 공간적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인간적인 체험과 기억으로 마음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공을 초월하여 수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욱 잘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세상 끝까지 그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바

로 우리에게도 당신의 수난, 부활, 승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때에 성령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시공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미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듣고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일상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을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수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아 우리도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려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봅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채워주시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승천을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 김주현 도미니코 신부 / 달맞이성당 주임

성인 말씀

천사처럼 거룩하게 기도하지만 덕은 조금도 진보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만족을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 가경자 테클라 메를로 -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수진 보나	신덕례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안나희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정광미 프란체스카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테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PV 2만

- 4 -

◆주일학교 여름캠프 등록안내

- 날짜: 7월 8일 (금) ~ 7월 10일 (주일)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대상: 3학년 ~ 12학년 주일학교 등록된 학생들
- 등록기간: 5월 22일 (주일)까지, 35명 선착순
- 참가비: \$60 (등록기간 후 \$85)

남가주 소식

◆제 22차 남가주 선택주말(Choice Weekend)

- 대상: 24~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남녀
- 일시: 8월 12일(금)~14일(주일)오후
- 참가비: \$300(반액은 본당지원 함)
- 신청마감: 6월 25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신호진 구네군다(213) 503-7909

◆남가주 제 28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강사: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 일시: 2016.5.26(목) 오후 6:00~29일(주일)오후4시
- 참가비: \$150 (숙박비 포함)
- 신청마감: 5월 8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각본당 기도회장, 또는 한테레사(714) 345-4791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 수련

- 지도: 예수회 최준열 다미아노 수사
- 일시: 2016.6.4~2017년 3월초,매주 토2시~5시pm
- 장소: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문의: 정 도로테아(818)321-9505
장 켈마 (224)305-4443

◆2016 FIAT 장학금 프로그램

- 신청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북미주거주 코리안 어메리칸 신학생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 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cholarship@fiat.org (714)702-9830

◆2016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 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1th)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 31/2016
- 신청문의-service@fiat.org (714)702-9830

◆ 제 3회 학생 성화 미술대회

- 대상: 유치부, 초등부(저학년,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
- 주제: “예수님 이야기” ● 작품크기: 24x24 인치이내
- 참가비: \$10(Pay to : Mee Lee)
- 접수기간: 4월 15일 ~5월14일
- 문의: 가톨릭 미술가회☎(909)576-5773 (562)292-8999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윤미애 안나 560-712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박명순 안나 968-760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맑고 푸른 계절, 엄마 품에서 자란 여린 잎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오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월을 성모님의 달로 정한 것은 단지 장미의 계절을 넘어, 인류구원의 협력자로서 생명(예수 그리스도)을 잉태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이어가고 분열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 화해와 평화, 사랑의 중개자이신 어머니 성모님께 가장 좋은 계절을 봉헌한 것이라 여깁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어머니와 성모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한 생명을 품어 생사를 함께하기를 열 달, 육천이백여 날을 소중히 키워 학교(수학여행)에 보냈더니, 주검으로 돌아온 내 새끼들..." 게다가 자신의 눈앞에서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 세월호에 갇혀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죽어가는 아이를 떠올리며 울부짖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무죄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적을 바랐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4일이 되자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엄마가 대신 갈게." "한 번만이라도 널 안아볼 수만 있다면, 만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세상의 어머니들은 한마음으로 슬퍼했고 위로와 연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일각에서는 "이제 그만 해라!"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상과 특혜를 얼마나 더 받으려 드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우들 사이에서도 보상과 특혜에 대한 음해성 문자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어머니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가족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정작 유가족들은 어떤 보상이나 특혜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단지 아이가 죽은 이유(진상규명)와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특검을 요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을 잃고 비탄에 빠진 성모님께 "이제 그만 해라, 지겹다."고 당당히 소리치는 이가 누구였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극복하여 다시 세상과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성모성월애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들과 그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묵주기도를 올립니다.

◆ 김검희 엘리사벳 / 정의평화위원회

[교리상식]



XP(=키로)는 무슨 뜻인가요?

☞ 가톨릭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의 약자입니다. 그리스어로 '메시아(구세주)'라는 뜻으로 원어로 쓰면 '크리스토스(ΧΡΙΣΤΟΣ)'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좌를 재건하는 분을 구세주, 즉 메시아라고 했는데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왕중의 왕으로서 하느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리라 믿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토스의 처음 두 글자를 딴 'XP'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입니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팔

[길을 찾는 그대에게]

본당에 신부님이 새로 부임하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분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사제는 지나치는 객"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지요. 솔직히 본당의 주인은 본당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점을 신부님들께서 유념 해주신다면 서로 행복한 본당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요?

☞ 놀랐다고 할까요? 간이 철렁했다고 할까요? 솔직히 적어주신 글인 만큼, 저도 솔직히 표현한다면…… 감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고 본당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다니, 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자매님이 일일이 끌어주신 경우를 살필 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제로서 사과를 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럼에도 자매님의 의견을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제의 것도 교우의 것도 아닌,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주님께서 당신의 양 떼를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사제를 파견하시며 셋째, 자매님의 행위는 결코 사랑의 판단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온유함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파견하신 사제를 '지나가는 객'으로 여기다니요? 설사 신자들의 뜻과 다르게 사목을 해서 '영 아니다' 싶거나 이런저런 모두가 도무지 성에 차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르신 방법은 명료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1코린 1, 10~17 참조)

◆ 장재봉 신부 / 선교사목국

예수님이 위선자라 비난한 바리사이파

예수님은 잘못을 저질러 당시 법으로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하는 여인에게 단 한 마디 꾸중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시면서 자비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을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한없이 너그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도와 희생을 열심히 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만나면 흥분하시면서 욕설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3,1-35

바리사이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혹은 실제 생활에서 열심히 지키는 법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죄인들, 특히 부당한 세금을 걷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리 같은 사람을 무척 경멸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8,9-14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행동은 본받되 마음은 본받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위선이란 단순히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6,1-8

예수님은 스스로 잘난체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대한 비난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스스로 나팔을 불고 다닌다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엄하게 하신 꾸지람은 실상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꾸지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 학자들과 ()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5,20)

“너희는 단식할 때에 ()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을 이미 받았다.

(마태 6,16)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행복보다 소중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좋은 사람과 있을 때,
고요하게 머물 때,
아끼는 것이 생겼을 때,
소중한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때,
이러한 순간들이 내겐 기쁨입니다.
이토록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루는 평화,
꼭 지키고 싶고 언제까지나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영 아네스-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1-855-388-414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 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겸사 겸*마리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 Bl. #1110 LA(에쿼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한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34 • OBB9589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	---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블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스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콜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